광주의 6월은 '공연의 계절'

루트머지(주)가 '도창이 그리는 광주의 멋과 풍류' 공연을 펼치는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관현악 합주'부터 '단막창극', '장새납 협주곡'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극'까지.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6월 한 달간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 3)에서 다양한 '광주상설공연'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하며 무료 공연.

오는 8일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달빛은 산울림을 타고'라는 제목으로 관현악 합주곡 '축제', '아름다운인생Ⅱ PASSION'을 비롯해 장새납협주곡 '넬라판타지아'등을 들려준다. 가야금 병창 고혜수가 부르는 '난감하네'와 '시리렁 실근'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어 9일 루트머지가 준비한 '도창이 그리는 광주의 멋과 풍류'는 도창(노래를 이끌어 가는 악인)의 설명에 영상미가 곁들여진 공연이다.

대취타 연주를 시작으로 소리꾼 김산옥의 현대적인 국악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판소리와 창, 무용을 비롯해 흥겨운 사물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판소리가 극으로 전환될 때 등장인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지문·해설 등을 소리로 전하는 '도창(導唱)'이 이번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점은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에 '수창'(首唱)으로도 불리던 도창은 극중 판소리의 소리나 아니리를 통해 관객의 흥을 돋우는 역할이다. 박과 박, 또는 장과 장 사이에서 줄거리를 풀이하는 일도 맡는다.

광주예술의전당, 토~일 상설공연
관현악 합주·단막 창극·연극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장르 다채

공연에는 광주의 100년 교방에서부터 이어지는 국악의 변천사, 옛 광주 정경 등이 음악과 영상에 담겨 있다. 올해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공모 당선작으로 16, 23, 30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립극단이 15일부터 3주 연속(22, 29일)으로 진행하는 '안녕, 프랑켄슈타인' 하이라이트 무대도 눈길을 끈다. '프랑'과 '사막여우'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환경보호, 우정, 선과 악의 대립을 주제에 녹여 냈다.

수백 년 동안 외톨이로 살아온 프랑켄슈타인 '프랑'은 성에 몰래 숨어든 '사막여우'를 만나 함께 모험을 떠난다. 프랑은 인간의 마음인 '양심'을 얻기 위해 푸른 요정을, 사막여우는 병을 치료할 백신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환경운동가 '원더'와 합류해 저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협심한다.

주인공들이 마녀 '카이만', '뱀 일당'과 대결하는 장면, LED 장식을 몸에 붙이고 춤을 추는 장면 등은 볼거리다. 원작에서 취하고 있는 액자식 구조나 심리적 서스펜스 등은 덜어내고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 요소를 도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질병' 소재도 시의적이다. 백신 획득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을 회복해야만 세상에 드리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의미 깊다.

전당 유선희 상설공연팀장은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 공연부터 광주 100년 교방사의 변천사를 들여다보는 전통예술 공연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주말 저녁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티켓링크 및 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조에 흐르는 자연의 대서사시

화순 출신 손형섭 시인, 첫 시조집 '눈 내리는 저녁'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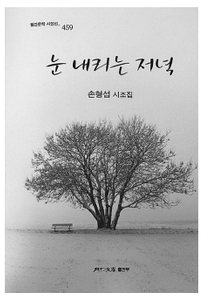
원로 문인 손형섭 시인이 첫 시조집 '눈 내리는 저녁'(월간문학)을 펴냈다.

화순 출신인 손 시인은 지난 2023년 '월간문학' 9월호에 시조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목포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재임시절 대학원장·경영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 꾸준히 글을 쓰며 농사도 짓고 있다. 논농사, 글농사를 지으며 서로 다른 체험을 작품에 투영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

손 시인은 이번 시조집 발간에 대해 "시조는 오랫동안 전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시다. 나름의 품격을 더해 시조가 지닌 고아한 아름다움과 담담한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품집에는 시인 나이와 같은 83편의 시조가 수록돼 있다. 제1부 '은하수 환승역'을 비롯해 제2부 '느티나무', 제3부 '그리운 금강산', 제4부 '겨울산', 5부 '희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시간의 흐름, 인생의 희로애락, 삶의 본질 등을 자연과 연관해 풀어냈다.

시인은 "그다지 넓지도 좁지도 않은 농장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자연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며 "자연이라는 대서사시가 주는 울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 등을 시어로 형상화하면서 벅찬 감동을 느꼈지만 여전히 창작의 길은 멀다"고 전했다.



한편 권혁모 시조시인(한국문인협회 이사)은 "손형섭 시조 세계의 편편을 아우르면 무엇보다 '다의적 은유에 의한 시조의 외연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며 "이는 선비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정감의 확장이거나, 고독이라는 화두, 이미지의 충돌에 의한 서정성의 완성,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삶의 성찰, 그리고 추억속에서의 자아발견 같은 것이리라"고 평했다.

한편 손 시인은 2017년 '문학예술' 봄호에 시 부문 신인상을, 가을호에 수필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다. 이후 시집 '별빛', '파도' 등과 수필집 '삶의 흔적', '추억'을 발간했으며 한국문학예술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과 광주시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및 국제펜 한국본부 이사를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꿈의 오케스트라, 시민들과 예술 소통

유안초 등 공연 2회 성료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광주'가 최근 광주 유안초 운동장, 화천기공 주식회사 테크센터에서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맞춰 전국 각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의 합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사랑의 인사'를 비롯해 '붉은 노을', '라데츠키 행진곡' 등 클래식 명곡과 영화음악 OST 9곡이 울려 퍼졌다.

올해 12년 차를 맞은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음악감독 양진)는 관내 18개 초등학교, 10개의 중학교에서 모인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파트 등으로 구성된 총 69명 단원이 활동 중이며 단원으로 문화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3년 '제1회 향상음악회'를 시작으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초청공연 등에서 지역민을 만나 왔다. 오는 8월에는 무안군청, 고창문화원 등과 '따로 또 같이 뮤직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서영란 팀장은 "아이들의 전인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에 도움이 되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며 "공연이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 단원들이 음악과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호남 선비들의 삶과 문학 그리고 예술

한국학호남진흥원, 다음달 2일까지 '호남의 인물' 강좌

김인후, 유희춘, 송덕봉, 고경명, 정개청, 윤선도 등.

호남이 자랑하는 학자 또는 문인, 선비들이다. 이들의 문학과 예술, 곧은 결기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호남의 인물을 모티브로 그들의 삶과 문학, 예술, 정신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4일부터 7월 2일까지 '호남의 인물'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매주 화요일(오후 3시 30분) 무등공부방 교육관 1층에서 열리며,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아시아인문재단과 공동 주관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호남학TV에 내용이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 4일은 '동방의 주자 하서 김인후'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성리학의 대가이자 필암서원에 배향된 김인후는 호남의 유종(儒宗)으로 추앙받고 있다.

11일은 '지기 유희춘·송덕봉 부부'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유희춘의 일기인 '미암일기'에 드러난 부부간의 예와 존중 등을 들을 수 있다.

18일은 임란 당시 금산전투에 참전했던 '만고충신 고경명'을 모티브로 강의가 진행되며 25일 '당쟁으로 얼룩진 곤재 정개청'에서는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을 대표했던 곤재 선생의 학풍과 절의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월 2일 '시선 윤선도'에서는 유배지에서 우리말로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겼던 고산 윤선도의 문학과 삶을 조명할 예정이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강연은 호남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백승종 교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며 "호남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매개로 호남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올해 호남학TV 사이버강좌 교육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강좌 외에도 기록유산 수집 및 보존 방안, 행초서 입문, 광주 도로명과 역사 등 강좌가 예정돼 있으며 주제별로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채널인 호남학TV를 통해 시·도민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